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장흥 신리 매생이 스낵·어묵 품평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고품질 품평회를...



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 가격을 잘 정할 경우 우리 수산물로 만든 건강한 가공식품으로 유행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날 품평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상품과 디자인을 보완한 뒤 추석 연휴 전에 출시할 방침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설제학 연우가정의학과의원 원장, 광주시장 표창

외국인 주민 무료 진료 봉사 등

"수십여 명의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고생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오래 봉사할 해고 있어 대표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도와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설제학 (49·사진) 연우가정의학과의원 원장(광주시의사회 부회장)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 유공자로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설 원장은 지난 27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외국인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식'에서 인도주의를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설 원장은 2014년부터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선배의 추천으로 이주민건강센터와 인연을 맺은 그는 이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진료를 받러 갈 곳이 없고, 의료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을 10년째 돌보고 있다.

개인 의원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진료를 한 후 일요일 오후 이주민건강센터에서 혼자 80여 명을 돌보는 등 산업 현장에서 여러 질환에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왔다. 또 코로나19 유행 시기 이주민건강센터 진료가 중단될 위기였지만, 만성



질환자를 돌보기 위해 유리벽을 두고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해 진료를 이어왔다. "환자를 진료하고 그들의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휴일에 진료를 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삶의 지혜를 얻고 에너지를 얻으며 오히려 제가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배우는 것들이 많아 요즘에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건강한 삶과 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작은 보탬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2005년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로 출범해 올해 개소 19주년을 맞는 (사)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광주시 비영리단체다. 약 2000명의 전문 의료인, 의대생, 직장인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매주 일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40여개국 5만5000여 외국인 주민 환자들을 돌봐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제11기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 수료식



제11기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 (학장 박기종·대표 고광현) 수료식이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사무소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강사랑환경대학은 지난 6월5일 개강, 모두 14강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병연씨 등 25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강좌는 재정기 전남대 명예교수,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습지보전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이론 강의와 함께

대충천 반딧불이 서식지, 무등산 국립공원 평두메 탐사리 습지, 광주시립수목원, 광주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탐방이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환경정화 공익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정기모임을 조직할 예정이며 환경부 주관 명예환경감시원 가입도 논의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대·한국광기술원

광역상정보 분야 교육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LINC3.0사업단은 최근 한국광기술원 광역상정보연구본부와 모빌리티 및 광역상정보 분야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모빌리티 및 광역상정보 분야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 상호발전을 위한 정책 연계와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대학교 제공>

오진 호남대 교수, 네이처 HSSC지에 논문 발표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오진 (Zhen Wu·사진) 교수가 최근 네이처의 HSSC (Humanities &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지에 '제조업 집적이 CO2 배출에 미치는 시간적 및 공간적 영향'을 주제로 한 논문의 제 1저자로 새로운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동적 공간 터빈 모형' (Dynamic Spatial Durbin Model)을 사용해 제조업 집적이 탄소 배출 감소에 미치는 내부 메커니즘과 공간적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HSSC는 네이처의 유일한 사회과학 학술지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인사

- ◆광주대학교 ▲부총장 김갑승 ▲부총장 겸 교육혁신처장 장미영 ▲대학원장 윤대환 ▲보건복지대학장 김미경 ▲공과대학장 최재완 ▲AI양트십대학장 박일우 ▲기획처장 나종희 ▲입학처장 김은실 ▲국제협력처장 이기표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and KBC/SBS, listing TV programs and their air times.

EBS1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05:00-09:20 and 09:40-16:40) listing EBS1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9일 (음 6월 24일 甲午)
36년생 사태를 예견하며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면 무탈하리라. 48년생 미연에 조치가 없다면 위기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60년생 지난 세월 동안의 누적된 원인을 차치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해야겠다. 72년생 외부 활동의 효과 크겠다. 84년생 거주장소가 바뀔 수 있다. 96년생 성취의 보람을 만끽하리라. 행운의 숫자 : 46, 70